





11



32



36

# 성도의 벗 <sup>1984</sup> 4 차 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켈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톰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야츠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맥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

신디에게 ………신디아 브라운 스티븐슨 ……………10

신권의 축복 ………엘리너 에이트스 바톤 ……………11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는 책 ………존 더블류 웰치 ……………13

우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로버트 에프 본 ……………21

왜, 어떻게 위임하며

어떤 방식으로 위임하지 않는가? ………윌리엄 지 다이어 ……………24

질의 응답 ……………29

마태에게서 받은 교재 ………데니스 윌시 노튼 ……………31

버스를 잘못 타고서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 ……………32

페루인의 하얀

하나님 이야기 네가지 ………커크 매글비 ……………37

종이 인형 ……………42

기억해야 할 날과 약속 ……………43

심심 풀이 ………로버타 엘 페어럴 ……………44

니타의 양 ………엘리자베스 프리츠 ……………45

토마스 케인 ………수잔 아링톤 매드슨 ……………48

지역 성도의 간증 지역 소식 ……………50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 224호, 제 20권 제 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49KO PRINT IN SEOUL, KOREA 4/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 보좌

벌써 오래 전, 내가 열 두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집사로 성립되었고, 당시 스테이크 부장이셨던 부친께서는 나를 처음으로 신권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 이 모임은 주중의 밤 시간에 열렸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의 제10 와드에 우리가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친께서는 연단으로 올라가셨으며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당 안에서 다소 외로움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고 개회 찬송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당시의 관습대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약 400명 가량이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모두는 소리높여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개종해서 왔던 그 나라 특유의 유럽식

발음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모두들 커다란 확신과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쁨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못 왕과 온 백성 경배하라  
(찬송가 185장)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나의 마음도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하신 예언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와드의 모임이나 공과반 그리고 가정에서 그분에 대해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스테이크 신권회에서 가졌던 나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때 나는 성신의 권세로 요

셸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후 그와 같은 간증이 다소 흔들렸던 때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신이 송두리째 나에게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간증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께서는 우리의 간증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좇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일에 허락하신 위대한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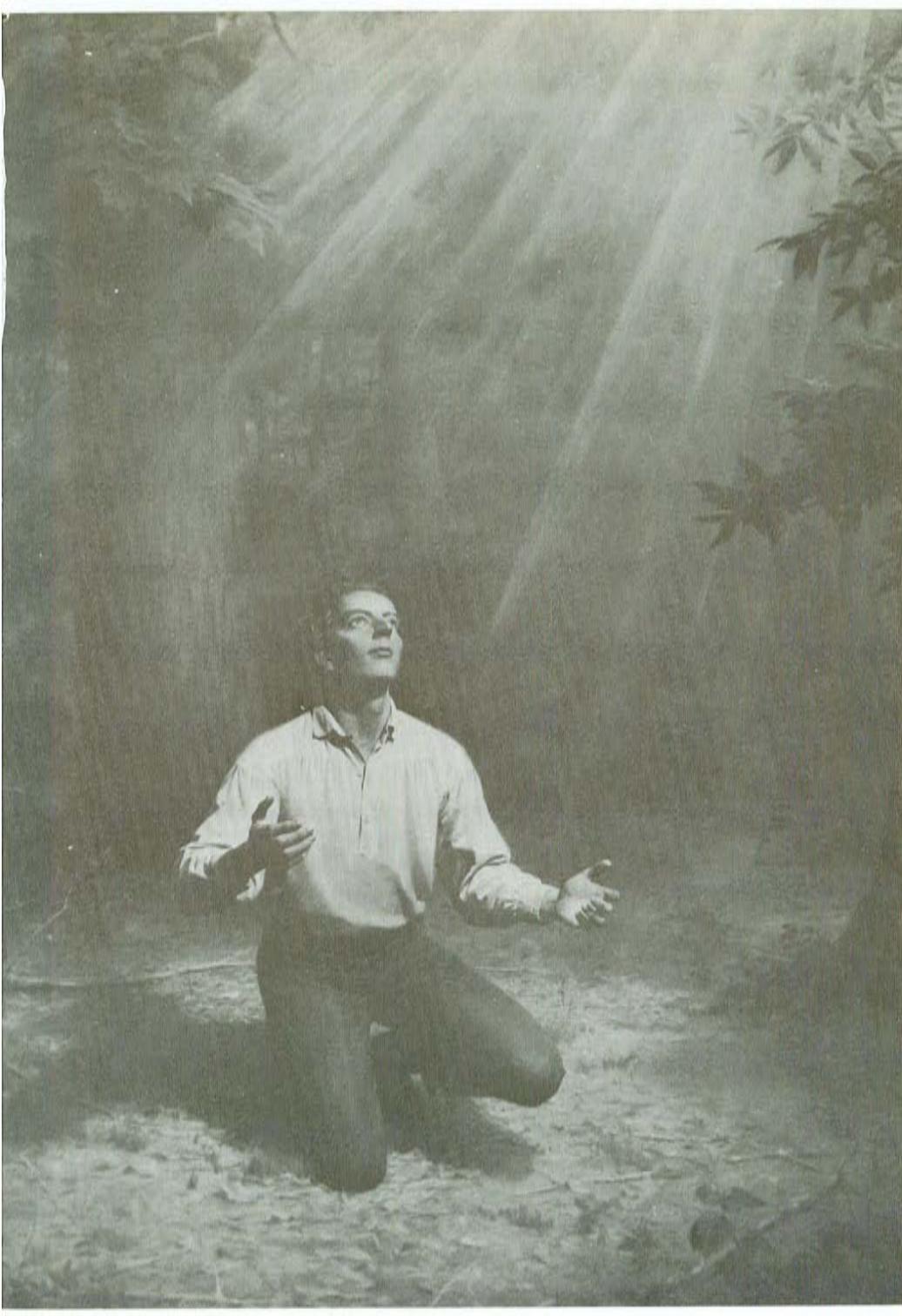
수년 전에,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사악한 사기꾼, 험잡꾼, 기만자라고 일컬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한 목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의 그 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소수의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강한 자는 더욱 강화시킬 따름입니다. 그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잠잠해졌으며 요셉 스미스란 이름은 세계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말일성도에 의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칠십인 정년회의의 두 형제와 열 두 명의 선교부장과 그들의 부인과 함께 선교부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리노이스주 나부에 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

었으며 하늘에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있었고 밤은 싸늘하고 낮은 따뜻했습니다. 관광 시즌은 지났으며 그 도시는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복원된 칠십인 홀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1840년대에 형제들이 왕국의 교리를 연구하며 서로 가르침으로써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려 나갈 준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진행되었던 그 사업은 오늘날 교회 선교사 훈련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과 그리고 다른 집과 나부의 홀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중요한 지도자 곧 요셉과 하이람과 브리감영과 히버 시 킴볼과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립과 프렛의 형제들—울슨과 팔리와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한 느낌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참으로 요셉의 도시입니다. 그분이 이 도시를 계획하신 예언자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일리노이스주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벽돌집과 예배와 가르침과 오락을 위한 홀과 강에서부터 솟아오른 언덕의 꼭대기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이 도시는 건축가들이 마치 한 세기 이상을 내다본 듯이 훌륭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의 카테지에서 있었던 그 비극의 날이 이르기까지 예언자께서는 거기서 지상 생활의 절정의 상태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한때 서서 도시를 바라보셨던 그곳에 내가 섰을 때, 나는 그분의 유업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곳에서 그분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세대 전에 영국 제도를 떠나 보스턴으로 왔던 그분의 조상과



아버지 계통으로 5대와 어머니 계통으로 4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신세계에서의 그들의 생활과 매사추세츠주와 뉴 햄프셔주와 버몬트주에서 농장과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일구었던 그들의 노력과 독립전쟁 당시 그들이 이룬 훌륭한 업적과 그들이 살았던 화강암 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역경과 실패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1805년 12월에 버몬트 샤론에서 태어나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이어받았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발진티푸스에 걸렸을 때와 큰 고통과 약화된 면역으로 요셉의 다리에 골수염이 걸렸을 때의 몸서리치는 병고의 기간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뉴 햄프셔 레바논에 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노바 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나단 스미스 박사가 있었으며 그가 감염된 다리를 구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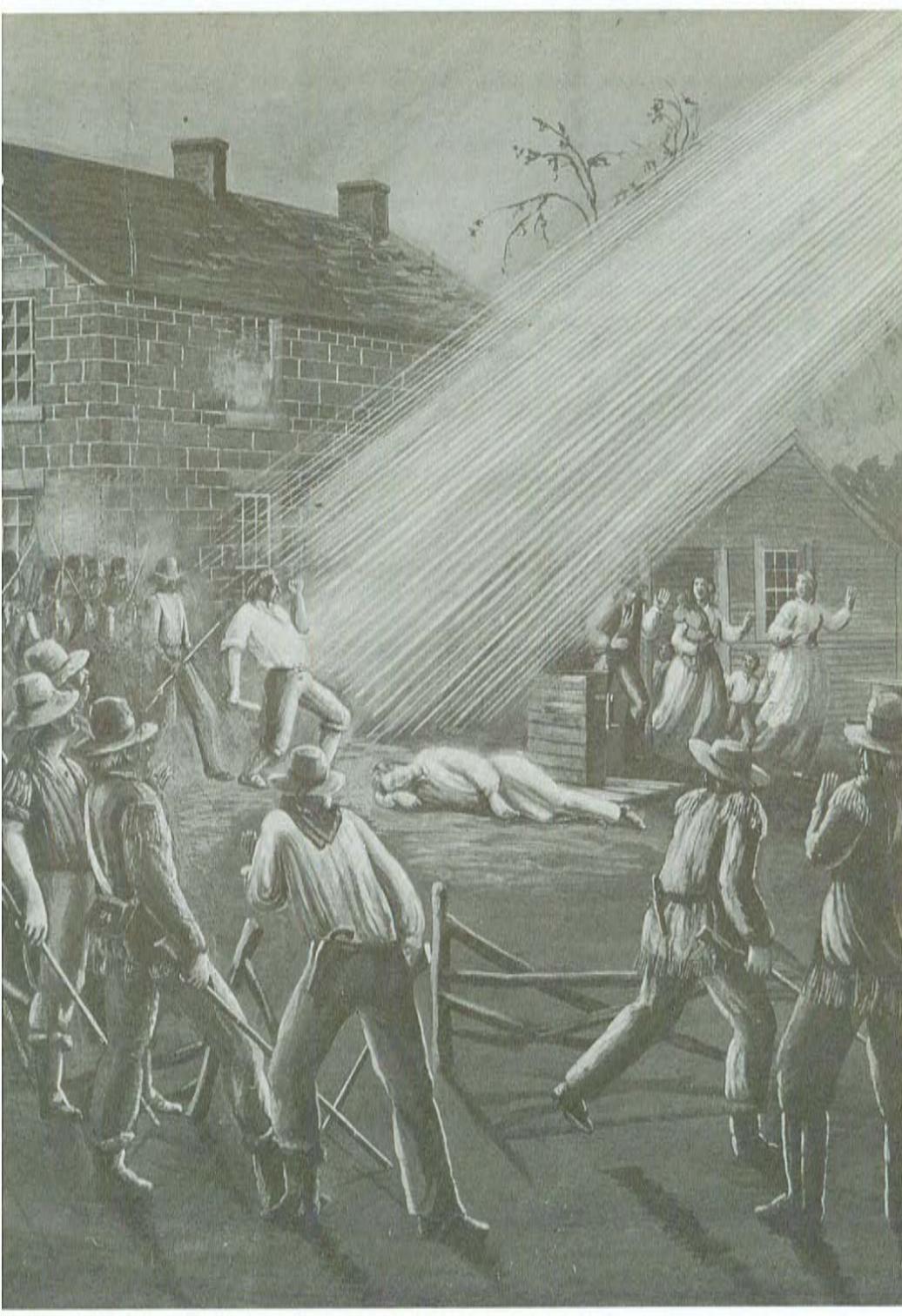
그러나 그 치료에는 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그와 같이 어린 소년이 아무런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고 절개 수술을 받고 감염된 뼈를 잘라 내고 있을 때 그 소년의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그의 어머니는 농장의 숲속으로 들어가 기도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아 그가 그것을 참아 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은 가히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심한 고통에 대한 기억은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후에 그가 커틀랜드에서 악당들이 쫓겨나 몸이 바르고 거기에 깃털을 꽂는 고통과 리버티에서 더러운 감옥 속에 갇히고 카테지에서 폭도들의 총탄을 받는 그러한 고통에 대비한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해 생각하면

서, 나는 뉴잉글랜드에서 여러 세대를 살았으나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 할 뉴욕으로 이사하게 했던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농장을 잃고 매마른 땅에서의 보잘 것없는 수확, 7월에 살인적인 서리가 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1816년의 흉한, 그리고 뉴욕 팔마이라로의 이주, 뉴욕 맨체스터의 농장 매각,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한 소년을 혼란시켰으므로 그 소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했던 부흥 목사 등에 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20년 어느 봄날, 그가 숲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한 영광스러운 시현을 보았으며 그 시현 가운데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의 아들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수년간에 걸쳐 그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의 교육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소년을 가르치고 꾸짖고 경고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무에 있을 동안에 예언자의 준비에 관해 깊이 생각했으며 이 놀라운 요셉 스미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성신의 권세로 그가 받은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관해 알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관심을 버리기 전에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세 가지만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물론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강한 자들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르도록 영향을 주었던 그의 권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셋째, 그의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물론경을 내 손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담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며 수세대에 걸쳐 비평가들이 그 이야기를 논박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설명하신 것보다는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 책을 쓰느라고 그들의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평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했으며 그들이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50년 동안 입증되어 온 바와 같이 지금에도 물론경의 진리는 학문상의 분석이나 과학적인 연구로 규정지어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물론경의 기원에 관한 진실성은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과 같이 경의와 존경과 기도의 정신으로 그 책을 읽음으로써 오늘과 내일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내가 연차 대회에서 물론경을 읽자는 목표를 주었는데 그 목표에 응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이 물론경 초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읽었던 수많은 강한 자와 유능한 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던 그 초판을 읽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뜻을 칭찬하고 또한 아무도 이 훌륭한 책의 영을 얻기 위해 반드시 초판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년에 출판될 백만부 이상의 물론경의 저작권마다 동일한 영을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놀라

운 약속이 들어 있으며 이 책에 대한 진실성에 관한 간증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물론경은 기도와 성실한 연구의 자세로 다루고 읽어야 합니다. 물론경이 출현된 지 153년 동안 이 비평가들의 모든 노력은 신뢰성이 부족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경은 읽고 성신의 권세로 이 책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얻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물론경은 그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이 책을 읽고 기도하여 그것이 진실되다는 증거를 받았던 수백만의 산자와 죽은 자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두번째 질문인 죽음까지 무릅쓰고 요셉 스미스를 따랐던 강한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주었던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지도력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자는 한번 그들을 따랐던 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를 구하려 오지도 않았으며,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 오지도 않았으며, 군사적인 정복의 꿈에 이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는 박해가 뒤따랐으며 고통과 물수와 오랫동안의 외로운 임무 수행,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죽음까지도

뒤따랐습니다.

울슨 하이드를 예로 들어 보면, 그가 젊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을 때 그는 커틀랜드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추와 실과 옷감을 파는 세상에 잘 알리지 않고 장래성도 없는 이 젊은 판매원 울슨 하이든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백성에게서 백성에게로, 나라에서 나라로, 악인의 회중에서, 저들의 회당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이치를 논하며 모든 경전을 해석할 성직에 부름을 받았느니라.”(교성 68 : 1)

마을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던 이 젊은이는 예언자의 부름에 영감을 받아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인, 뉴욕주에 이르는 3200킬로미터의 길을 걸어다니며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치를 논하며 모든 경전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는 나무에 있는 울슨 하이드의 안락한 집에 들렀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는 영국과 독일로 여행을 떠났으며 터키의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탄불), 이집트의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으며 예루살렘에 들려 1841년 10월 24일에 감람산에 올라가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의 귀환을 위한 장소로 헌납했습니다. 그것은 데오도어 헤르츨(1860-1904)이 유대인을 그들의 고국으로 모으는 운동을 시작하기 25년 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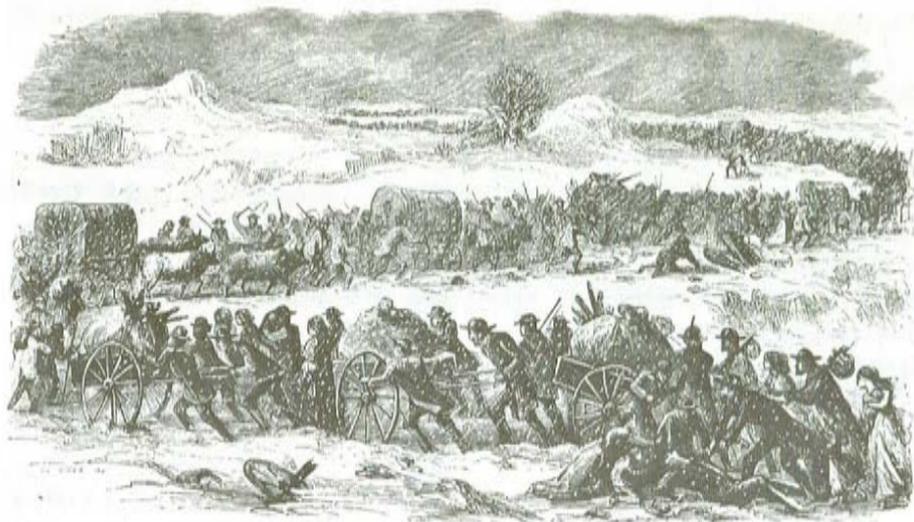
또 다른 예로 윌라드 리처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자였으며,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일리노이스 주 지사께 스스로 나아가 카테지 감옥에 감금되었을 당시 그들과 함께 갇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844년 6월 27일 오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볼보기 위해 보내졌고 단지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처드만이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에 폭도들이 와 있음을 안 간수는 감옥의 감방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요셉은 윌라드 리처드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감방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이 질문에 리처드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나에게 형제님과 함께 강을 건너자고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카테지로 가자고 요청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감옥으로 가자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형제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겠는지 형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대역죄’로 달리기로 선고받으면 저는 형제님 대신 달리겠으며 형제님을 풀려나게 하겠습니다”(비 에이지 로버츠, 교회사 요해 2 : 283)

강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험잡꾼 또는 사기꾼을 위해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인간 가운데 고결성을 인식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표현이며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 : 13)라고 선언하신 구세주의 모범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브리감 영과 킴볼과 테일러와 스노우와 프랫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를 만났을 때 그들은 평범하고 장래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회복한 진리와 신권의 권능으로 남에 대한 그들



의 봉사를 통해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요셉 스미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예언이 있으며 그것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그가 1832년 성탄절에 말씀하신 남북 전쟁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 합중국의 남부에서 성행되었던 노예 제도를 개탄했던 많은 고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론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것이 일어나기 39년 전에 감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남 캐롤라이나의 반란으로 시작되어…… 드디어는 모든 국민을 휩쓸” 것이며 “남부 제주는 북부 제주와 갈라져서 대적하리라”(교성 87 : 1-3)

이 놀라운 예언은 1861년 남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구의 섬터 요새에서 불을 뿜기 시작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 스미스가 39년 전의 일을 그와 같이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에게 있었던 예

언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대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성도들의 이동에 관한 놀라운 예언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당시 성도들은 나무와 미시시피강 건너 편이 이 자매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전에 알지도 못했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과 다른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벽돌로 지었으므로 오래 건디었습니다. 그러나 1842년 8월 어느 날 요셉 스미스가 몬트로스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성도들이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록키 산맥으로 쫓겨 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박해자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며 험벗음과 질병으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며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는 살아서 성도의 이주를 돕고 도시를 세우며 성도들이 록키 산중에서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입니다”(교회 정사 5 : 85)라고 하셨습니다.

시간과 상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말

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초월한 지식으로 말하는 자만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운명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미리 보신 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다. 신성하지 못한 손이 발전하는 주님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 박해가 일어나 격심해지고, 군대가 집결되고, 폭도가 규합되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 모든 나라 곳곳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귓전에 울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실 때까지 담대하고 숭고하며 자유롭게 계속 전파될 것이다.”(교회 정사 4 : 54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은 위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모든 인류를 망라하며 지상에 살고 있는 자와 살다가 죽은 모든 세대까지도 망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대에서 무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를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기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시도한 자로써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새롭고 마지막 복음 시대를 맞아들이기 위해 전능하신 자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셨다는 내 자신의 간증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창도한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그는 그 자신 또는 미래의 어떤 세대가 공정히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정직과 성실성에 대한 최



**요**셉 스미스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루키 산중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했음.

대의 시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위해 죽을 때 모든 악한 혀는 잠잠해질 것이며, 그와 같이 완전한 희생 앞에 모든 음성은 경진해질 것입니다.”(에즈라 텔비, 원고, 1926년 12월 12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일의 위대한 종 요셉 스미스를 찬양하는 다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화로운 그 귀한 신권  
영원한 열쇠를 갖게 되리니  
진실한 예언자 천국에 올라  
뜻예언자 중에 면류관 쓰리  
(찬송가, 185장)

\*

# 신디에게

신디아 브라운 스티븐스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나는 스무 살이었고 집에서 4,8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2년간이나 뵙지 못했으므로 이것은 나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두달 후 선교사가 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토론을 하는 가운데 나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믿음이 교회의 그것과 비슷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자라났던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니고 계셨습니다. 나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3주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침례는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히 슬프고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그 진리와 매우 흡사한 신념을 갖고 계셨으나 불과 2개월 차이로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나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적인 화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와 침대에 곁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흰 옷을 입고 계셨으며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꼭 같아 보였으나 이마에 깊게 파진 근심과 슬픔의 주름살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으며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내가 잠을 깨었을 때,

나는 단지 꿈속에서 어머니가 잠시 동안만 나에게 말했으며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나에게 안심시키시고 확인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 주에 우편으로 소포 상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속에는 나의 어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으며 어머니 자신의 필체로 "신디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물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기에 오래 된 가족 사진이 있었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던 조부모의 사진도 있었으며 나의 학교 신문, 어린 시절의 사진,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최초의 편지가 들어 있었으며 나의 어머니께서 기록하셨던 조그마한 흰색 일기장과 개인적인 서신과 오래 전에 나의 외할머니께서 시작하셨고 어머니께서 세심하게 기록하신, 몇 세대가 포함된 가족 계보가 들어 있는 오래 되어 누렇게 되고, 너털너털하게 된 큰 그래프 용지에 기입한 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 해묵은 상자에 머리를 대고 울었습니다. 나의 호느낌이 의문과 슬픔을 씻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나는 마음속에 가득 찬 화평을 찾았습니다.

그와 같은 화평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념이 교회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사실, 또는 어머니께서 가족의 물건들을 수집해서 상자에 보관하셨다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애와 가르침은 나로하여금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으며, 어머니의 신앙과 영감이 내가 우리의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킬 수 있는 계보 및 신진 사업을 행하고 가족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 신권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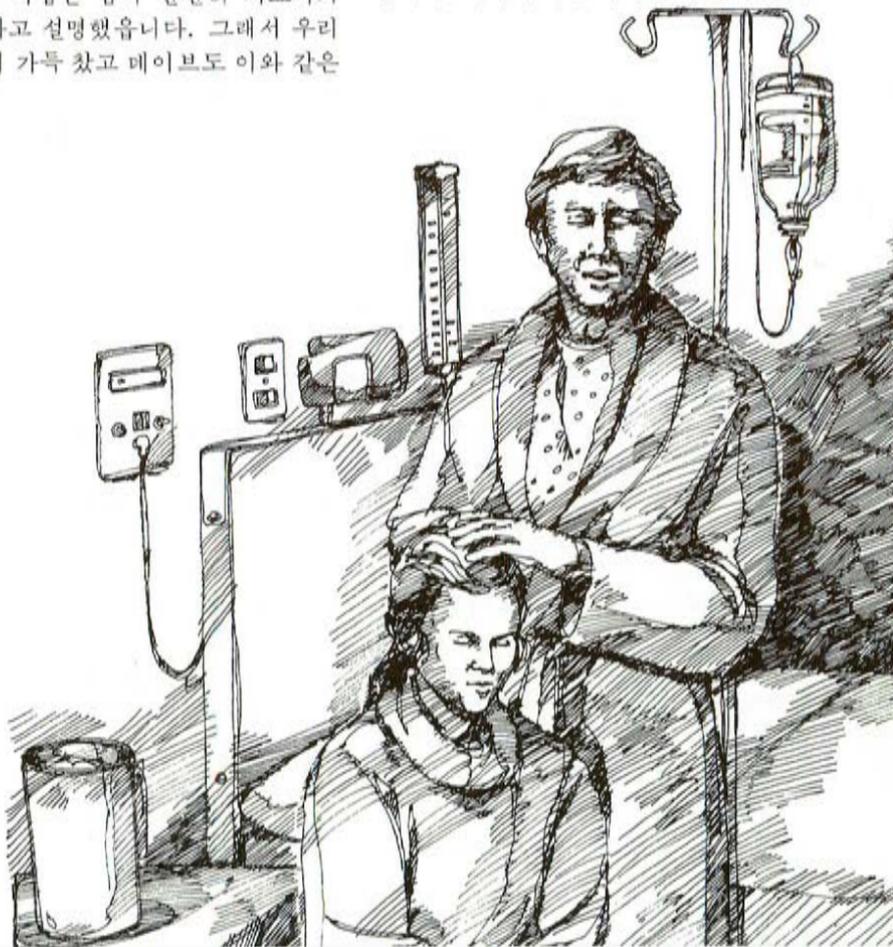
엘리너 에이트스 바론

내 생애에서, 3년 전 남편 데이브가 심히 앓아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처럼 신권의 축복이 더 위대하게 느껴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 나의 남편에게서 수술이 불가능한 커다란 암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현대 의학은 생명을 수년간 연장시킬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암이 완전히 치료되기 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에 가득 찼고 데이브도 이와 같은

행운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폐 가운데는 피덩어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후 3주간 동안 암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이차적인 것이 되었고 의사들은 그의 폐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흉곽 수술을 받았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에게서는 한번에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암에 관해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의사에게 데이브의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물고 나서 나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화학적인 주사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2년간 암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찔했습니다. 나는 그가 15년 내지 20년의 기간을 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남편이 2년 동안 살아 있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브가 실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은 이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낮 3일간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내 자신이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나는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감독님과 가정 복음 교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신권의 축복이 심히 필요했으나 만일 내가 입을 열게 되면 나의 감정을 억제할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몇 분 후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일로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음과 같은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브는 신권을 가졌어. 그는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자”에게 “건강한 자”를 축복하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그에게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남편의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내 앞에 서 계셨던 남편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환자를 입고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너무 약해서 거의 설 수조차 없었으나 결국 그의 양손을 내 머리에 얹고 나에게 신권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 의로운 자에 의해 행사되어진 하나님의 신권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나의 남편은 주님께 내 마음에서 슬픔이 떠나기를 간구하면서 힘과 권세와 권능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나의 고통은 사라졌고 커다란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손을 대사 슬픔을 없애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슬픔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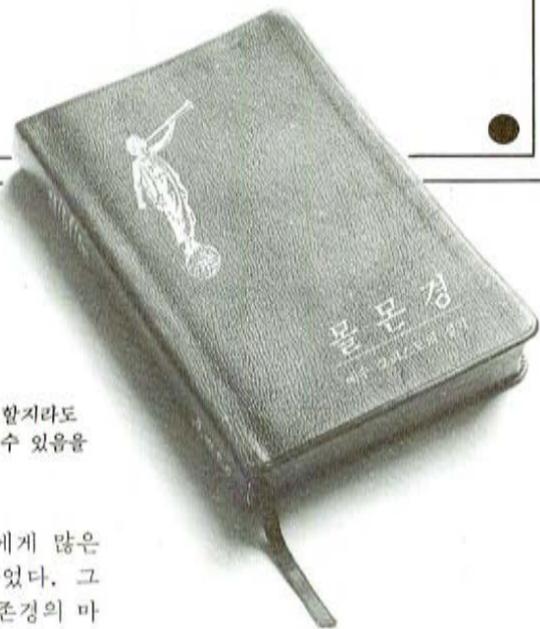
암에 대한 데이브의 투병은 고통스러웠고 3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이제 그는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늘날 살아 있는 이유가 신권의 권능 때문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슬픔은 세상에 하나없네”(“근심있는 자들 다 주께 오라”, 찬송가 135장)라는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권을 통하여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복을 입은 한 용감한 자의 손으로 주어진 권능으로 방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날 저녁처럼 신권이 나에게 귀중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

**바톤** 자매는 여섯 자녀의 어머니이며 베니온 유타 스테이크 베니온 와드 회원이다. \*

#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는 책

존 더블류 웰치



나는 학자들이 개종하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문경이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수 년간에 걸쳐 물문경은 나에게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물문경은 나에게 특별한 존경의 마음을 기울이게 했다.

물문경은 참으로 나에게 놀라운 책이다. 내가 그 책에 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정확함, 일관성, 타당성, 지속력, 통찰력 그리고 중대성 등의 면에서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어떠한 책에 그렇게 지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외에 특별한 경탄과 경외와 존중심을 갖게

해준다는 면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과장될 수 없는 정확하고 가치있는 기록으로 물문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물문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왔다. 그러나 그 책 자체가 학자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책을 더욱 존중해야 할 계 단계 되었다. 나는 조금도 주저

모사이야서 5장 10~12절에  
나와 있는  
교차 대구법

**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에

**다** 하나님의 원 편에  
있으리라.

**라** 그러므로 범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마** 결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으리니.

**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한  
그 이름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항상 그 이름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마** 너희 마음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계하여  
범법하지 아니하여

**다** 하나님의 원 편에  
있지 않게 하며,

**나** 그리하여 너희를 부르실  
이름을 듣고 알며

**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을 들어  
알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지 않고 물몬경이 경탄할 만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책에는 위대한 책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책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빛을 보게 된 많은 고대 종교적인 기록들을 포함하여 여러 고대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입증되었으며 이것은 거룩한 문학에 관해 학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고정된 관념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물몬경에 관련된 이 자료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의 특별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스스로를 성신의 권세로 개종되도록 놔 두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록 개종되지는 않았지만 물몬경으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간증이란 분명히 학문적인 이론이나 결론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인 확신은 영적인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들 중의 대부분은 물몬경의 개종시키는 권세에 관해 경험을 갖고 있다. 잠시 물몬경의 개종시키는 권세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나는 물몬경이 강하게 나의 영에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득력있게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책은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려깊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 내가 말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예가 있다.

독일에 있을 때 나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가 강연하는 일련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교차 대구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교차 대구법은 고대 문학 서술 양식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교차 대구법을 사용한 구절은, 문장의 앞에 나오는 단어는 마지막 문장에, 그 다음 단어는 마지막 문장 바로 전에 이런 식으로 대치되게 구성하는 것이다.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교차 대구법의 사용,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차 대구법은 서구 사조보다는 근동(近東) 사조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강의를 끝난 얼마 후 나는 그 교수와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 나의 목적은 그에게 물문경에서 찾아 낸 4개의 복잡한 교차 대구법 구절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모사이야서 3:18-19, 5:10-12; 엘마서 36장 및 니파이일서) 모임은 짧게 끝났다. 왜냐하면 물문경에 나오는 교차 대구법 구절이 고대 근동(近東) 사조를 증명하는 것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것은 물문경이 근동 사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물문경의 허구성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하므로 크게 실망을 한 교수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두번째 학자는 1960년대에 널리 알려진 천주교 신학자로서 그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차 대구법에 관해 저술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 살고 있는 천주교 예수회의 제사였다. 나는 그와 물문경에 관한 나의 연구에 관해 특별히 신선 연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방문해 달라고 초대하였을 때 캐히 방문을 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물문경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읽어 보았지만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 자신의 전문 분야의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아주 복잡하고 가치있는 문학 기록으로 여겼으며 의식적으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 보다는 매우 복잡한 구문을 준비하였다. 그가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예 중의 하나가 마태복음에 4-8부분의 비유 구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마태복음 5장 3-10절에 나오는 팔복(八福)이었다. 물문경도 역시 4-8부분의 구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가 모사이야서에 나오는 베나민 왕의 연설 중의 몇 가지와 엘마서 34장 18-25절에 나오는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여 주었을 때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물문경에 대한 불신감과 무시하는 마음이 곧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의 대화를 거의 끝마칠 무렵에 60년 이상을 활동적인 학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이 학자는 진지하게 그의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특히 나 자신이 물문경에 관해 더 알고 싶었을 때 느꼈던 그러한 열의를 그의 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말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 책에 많은 생명의 말씀과 인생 동안 행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아셨군요.”

또 다른 사람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 산하 성서 협회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있던 수석 연구원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받고 있었으며 방대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한 친구가 물문경에 대해 알아보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이 모임에서는 특히 물문경의 의식 및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버트 노이스 그림

국제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리하이의 태도를 묘사해 놓은 부분을 토론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그들의 오랜적인 바빌론에 대적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에레미야는 이러한 결정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리하이의 정치적인 생각도 에레미야의 생각과 같이 일반적이지 아니었던 것 같았다.

바벨론의 동맹국 중의 하나는 시돈이었지만 시돈의 쌍둥이 도시인 두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물문경의 백성들은 자주 시돈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시돈이란 명칭의 도시가 있으며 시돈이란 강이 있으며 심지어는 기드기드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브리감 영대학교의 휴 니블리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시돈에 대한 애굽어 명칭이다. 그러나 두로라는 명칭은 물문경에서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에 구약전서에서는 이 두 명칭이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문경에서 두로보다는 시돈을 사용했다는 이 명백한 선호성은 리하이가 알고 있던 세계의 상황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으며 리하이는 이웃 도시와 개별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상이었을 것이며 그의 안전과 재산은 다른 도시에 있는 이국인을 보호했던 Chwva 즉 "우정 협약"에 의해 보장되었으리라는 니블리 형제의 추론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자연히 그가 애굽인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는(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과 애굽이 동맹을 맺은 것을 한탄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나라가 안전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문경 학습 개론 참조, 펠기새텍 신권 과정, 1957년 52페이지)

이것은 내가 이 저명한 학자와 토론하

고 싶었던 여러 부분 중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했었다. 처음에 나는 이 모임이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었다. 그는 물문경의 여러 장을 이미 읽었으며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이 요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우리는 다시 그가 읽었던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다시 한 상황 한 상황 살펴 나갔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말을 나눈 뒤에 그는 물문경은 결코 무의미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시인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책은 앞으로 반드시 정중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건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딴 국제 우드로우 윌슨 우정 증진 대회에 입회한 일이 있었다. 이 대회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30분 개별 접견이었는데 여기에는 세 명의 심판관들이 각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아무 질문이든지 묻는 것이었다. 내 접견은 거의 중간까지는 아주 잘 진행되어 나갔는데 심판관 중의 한 사람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었다. 내 기록철에는 물문경에 대한 브리감 영 대학교 간행물을 위해 내가 쓴 기사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는 질문을 했다. 그는 도전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물문경은 단지 성경으로부터 내용을 따온 것이 아닙니까?”

다음 5분간은 나에게 충분된 시간이었다. 나는 물문경이 여러 분명한 점에서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두 책에 다 나와 있는 산상 수훈에 관해 제임스 왕역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유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태복음 5 : 22; 줄친 부분이 첨가됨) 줄

친 구절은 마태가 쓴 후에 원문에 첨가된 개찬 부분임을 나타낸다. 초기 신약전서 원본에는 그 구절이 없으며 물문경에도 없다. (니파이삼서 12 : 22 참조) 나는 또한 물문경에서 인용한 몇 가지 이사야 구절과 성경에 있는 같은 구절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과, 물문경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과 비성서적인 유대인들의 비유 사이의 중요한 유사성(특히 생명의 나무와 요셉의 의미에 관한)과 마지막으로 물문경 예언자들의 기록의 일부로 원문 시를 지적했다.

나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나의 대답이 그들을 납득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다른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이 마침내 그 도전적인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신랄하게 물었다. “말을 듣고 보니 나는 물문경이 성경에서 내용을 따온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물문경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번째는 내가 우정 증진 대회에 가입이 허락된 사실이였다.

나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리이스 철학에 관한 졸업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나는 많은 학자들과 물문경에 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여러 명의 신약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고대 그리이스의 지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 토론은 초기 그리이스 철학의 발전에 있어서 상대성의 역할에 대한 얘기로 옮겨졌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란 이름의 한 철학자는 우주에서 상대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대성의 문제 이외에도 그는 일치성에 관해서도 입증하려 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리하



이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만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니파이서 2:11) 이러한 발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구절에 관해 진지하게 더욱 알고 싶어했으며 특히 상대성에 관한 리하이의 정신적인(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상의 관점에서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북 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시대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기록 즉 퓨디피그라프라고 알려진 기록들을 수집한 것을 연구하는 졸업 세미나에 참가했다. 그 세미나에서 나는 때때로 물문경에 관해 언급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 자신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한 저명한 교수가 “조시무스의 이야기”라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기록을 조사하는 세미나를 갖도록 요구했다. 그것은 주전 약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이전에 인도해 냈던 한 의로운 가족에 관한 기록이었으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축복된 땅으로 갈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그들은 손톱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부드러운 금속판에 기록을 남겼다는 내용이었다. 그 책에 의하면 조시무스는 시헌으로 이 백성을 방문하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들의 땅에 닿기 위하여 조시무스는 광야를 지나 여행해야 했으며 어두운 안개를 헤쳐 지나갔으며 대양을 건너 잘 익고 꿀과 같이 달콤한 맛을 내는 과일이 달린 나무를 지나야 했다(니파이일서 8:10-12, 11:25 참조)고 되어 있었다.

이 근동의 기록에 관한 몇 가지 기술적인 면을 토론한 후에 교수는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시무스의 이야기에 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기록입니까? 그 세미나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반원들은 그 기록은 분류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세미나에서 리하이와 그의 가족의 역사와 물문경에 관해 좀더 이야기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반원들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교사는 “여러분, 이 물문경에 관해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물문경이 사용한 교차 대구법과 엘마서 13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리고 전에 들어서 개별적으로 토론했던 다른 몇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문경에 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비록 세미나에 참석했던 몇 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요셉 스미스를 환생한 유대인 기록자로 단정하는 것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내게 의미있었던 것은 처음엔 물문경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난했었던 학생이 이제는 좀더 알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대해 보면 특별하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물문경을 진지하게 대했을 때 이와 비슷한 수많은 경험을 했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함께 모아 놓으면 그들은 물론경에 대한 뜻깊은 간증을 전하는 것이다.

비물론 지식인들이 무관심하게 물론경을 무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 책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금판, 천사, 소년 예언자와 같은 것은 난카로운 학자들에게 마치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그 책의 외관상으로 단순한 문체와 다른 고대 히브리어 경전과의 명백한 관계는 그 책이 무의미한 것이며 단순한 속임수라는 비난에 대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무의미한 것은 그 책이 아니며 관찰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 중에 물론경의 관찰자로서 가장 크게 잘못을 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물론경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보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평가(좋은 의미로)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졸업 세미나, 한 무리의 옥스포드 학자들, 심판 위원, 연구원, 이론가, 교수 등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련시킬 수가 있는가? 아주 단순히 이와 같을 것이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물론경은 주님의 놀라운 도구이다. 그 책이 스스로 존중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건축자가 거부하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 : 11, 시편 118 : 22) 종적인 물론경 또한 많은 다른 충실한 건축자들에 의해 무시하게 거절되었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진실한 것들의 경우가 자주 그렇듯이 명철자의 지혜가 주님 앞에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29 : 14)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확신과 더 높은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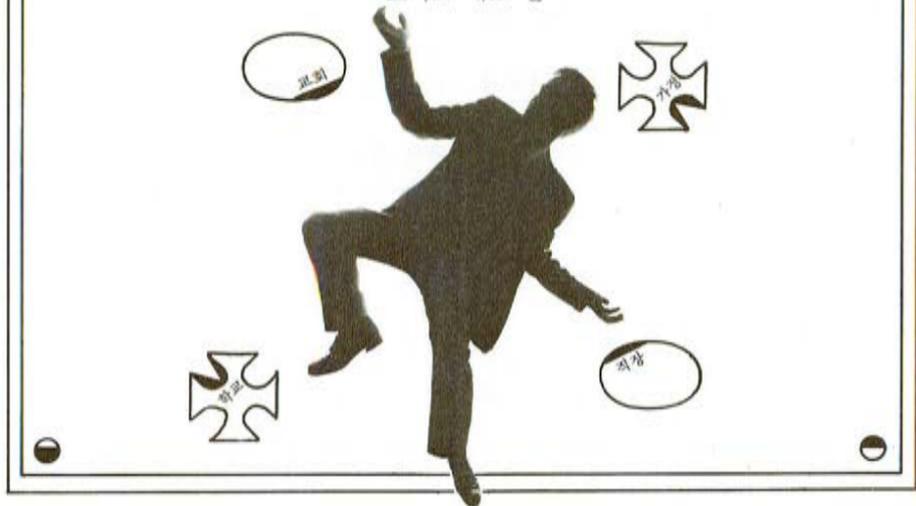
심이 의심의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물론경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책이 어떤 독자들의 마음에 많은 의문점을 남게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 자신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움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답변을 찾음으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확신을 얻게 되면 존중심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존중심으로 때때로 간증이 분명해 질 수 있다.

나는 물론경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책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책은 유익한 교리와 꾸지람, 그리고 의롭게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거룩한 경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없이 물론경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진리라는 성신의 증거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 그 책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내가 이 책을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갔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로 인해 이 귀중한 기록에 담겨 있는 말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 대한 나의 존중심이 커갈수록 나 또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

# 우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로버트 에프 본



우리는 때때로 이 생을 살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음성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이며 그들이 권장하는 활동들은 훌륭하고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

“교회의 부름에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라”

“여성은 여러 적합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에서 성공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어머니다운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의 교회 부름에 더 많은 시간을 내라.”

“극단적인 경향을 피하라.—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따라서, 현실적인 말일성도로서 많은 음성들이—가정, 교회, 사업 및 지역 사회에서—시간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쌓이게 된다.

## 기한이 있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1) 이 훈계는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 속에 살며 현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람이 여러 활동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은 그가 속해 있는 삶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각 단계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알맞는 때에 그 목적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우선 순위를 세움

우리는 특별한 때와 특수한 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의 “올바른” 원리—즉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교회 부름을 달성하는 것—가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열쇠는 각 상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 상황에 맞는 것은 다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선 순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느 선택이 이 특별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부모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서는 특별한 교회의 부름보다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지만 그밖의 다른 때에는 아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는 것보다 워드 회원들의 영적인 복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또는 교회—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다. 가정과 교회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며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모두 우선이 될 수 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 사항 중의 하나는 영의 인도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 질 때 우리는 작국면 또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선 순위를 보다 잘 세울 수가 있다.

##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여기 저기에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쳐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고 때때로 자문하기 쉽다. 우리는 항상 여러모로 시간을 뺏기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하나 하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자연적인 한 부분임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매일 매시간을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실망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유를 들어 보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의 다리를 사용하는 동안은 자전거를 움직이고, 그 사람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만 만약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는 움직이는 상황이 멈추게 되고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로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멈추거나 실망할 때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많은 요구 사항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전망이 흐려지게 된다. 반면에 움직이고 활동함으로써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생활이 생산적이고 올바른 전망을 유지할 수가 있다.

## 조화를 찾는

우리의 생활에서 조화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할 여러 상황들을 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합창단의 지휘자를 예로 들어 보자. 훌륭한 합창단은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를 부르는 다른 많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각 단원이 전문적인 가수일지라도 만약 다른 단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원하는 대로 크게 부른다면 그 결과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잡음이 될 것이다. 합창단은 지휘자가 각 단원으로 하여금 제때에 정확한 크기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지휘자는 각 단원의 독특한 관심사를 조절함으로써 혼란에서 균형과 아름다운 소리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가정, 제보 사업, 가정 복음 교육, 선교 사업, 복지 지명, 신진 사업, 모임, 시민의 책임, 이웃 생활, 직업—“나타난 요구 사항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이러한 음성들(요구 사항들)—모두가 일리가 있음—이 그들의 좋아하는 노래나 음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자의 음을 내게 하기 보다는 우리 각자가 지휘자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교성 58:28) 그러므로 그 결과가 불협화음을 이루는 잡음이 되거나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룬 음악이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음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 모두 함께 통합함

“이 생을 살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상의하여 우선 순위를 세워서 많은 요구 사항들을 적당한 때와 기한에 따라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항상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쁘게 노력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교성 58:27) 하고 실망을 얻게 되는 많은 순간들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균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화음이 잘 맞는 노래가 되든지 시끄러운 잡음이 되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의 우선 순위와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우리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참조)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왜, 어떻게 위임하며 어떤 방식으로 위임하지 않는가?

가정과 교회에서의 몇 가지 제언  
윌리엄 지 다이어



지도 원리 중에서 위임보다 더 널리 잘못 이해되어 온 것은 없을 것이다. 일에 과몰입해 있는 지도자에 대하여 흔히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는 더 위임해야 합니다.”라고 하거나 “왜 그는 위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한 가정은 위임한다는 것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떠맡기고 갑자기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라면, 위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즉시로 좀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그 지도자는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좀더 직접적인 것은 지도자 편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다.

###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위임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중요한 출발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위임하는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1. 임무 지명. 임무 지명이란 보통 그때에 주어지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과제를 말한다. 지명의 예가 되는 것은 말씀, 공과 부분 발표 및 심부름하기 등이다. 열 여섯 살짜리 우리 아들이 아침 일찍 농구 연습을 하러 가야 했는데 내가 차로 데려다 주어야 할 형편이었다. 나는 큰아들에게 내 대신 이 일을 책임지고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위임된 한 건의 지명 사항으로써 그날의 내 일을 덜어 주었던 것이다.

지명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므로, 보

통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지명은 새로운 면에서의 관심과 훈련과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과제. 과제는 보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크고 복잡한 일관된 일을 말한다. 그러나 지명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속되는 책임에 따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우리 감독이 대제사 그룹 지도자에게 와드 만찬을 주선하는 과제를 위임했다 하자. 여기에는 음식, 식탁, 장식, 음식 대접, 여흥을 위한 제반 준비가 포함되었다. 그 과제를 맡은 정원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책임에 맞추어 여러 가지 지명을 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부모도 전반적인 과제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맡겨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잠자리를 정리해라.”, “이것을 이웃집에 갖다 주어라.”, “내 옷을 입어라.”,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식탁을 정리해라.” 등과 같이 사소한 지명만 해줄 것이 아니라, 가정의 밤 활동 계획, 주례 식품 구입, 주례 식단짜기, 식품 비축 검토 등과 같은 과제를 위임시켜 줄 수 있다.

훌륭하게 위임된 과제는 책임이 부과된 사람들에게 훌륭한 성장 기회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전체적인 과제를 위임하기를 두려워하고 다만 지명만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지도자나 부모의 처사이다.

3. 업무 분담. 업무 분담은 단순한 지명이나 과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될 복합적인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위임된 업무 분담은 특별한 직책이나 부름으로 확립된 규칙적인 기능의 형태

로 될 수 있다. 스테이크 부장은 어떤 복지 농장 활동에 대한 책임을 특별한 고등평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독신 성인 프로그램을 맡기고, 또한 청년, 청년 프로그램, 교사 자질 향상, 스포츠 활동 등을 자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업무 분담은 부름이나 직책같이 공식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위임되는 것이다. 어느 아버지는 집의 차를 잘 정리해 두는 책임을 큰아들에게 맡겼다. 십대의 딸은 가족을 아침에 일찍 깨워 경전 읽기와 기도를 하게 하는 임무를 맡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어떤 가족은 집안 청소를 활동 분야로 나누어 여러 식구들에게 특별한 부분을 청소하게 하는 책임을 위임시켰다.

어느 어머니는 시장보기를 딸에게 위임시켰다. 이것은 그 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취급하고, 모든 식품을 구입하며, 가족의 식단에 맞추어 물건 구입을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업무 분담에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고, 지도자나 부모의 짐을 덜어 주는 훌륭한 기회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지도자가 그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들 수도 있다.

## 왜 위임하는가?

지도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위임한다: (1)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시간과 능력 또는 기타 자원이 부족하다. (2)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책임과 활동에 수반되는 성장의 기회를 주기 원한다.

반면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1) 그들은 그들이 수행하고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2) 그들 자신이 그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3) 어떤 것을 위임하고 난 다음 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다. (4) 사람들이 지명받은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불평도 늘어 놓아 위임된 일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도 걸리는 수가 있다.

## 장애 요소 제거

위임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제언은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1. 영감을 구한다. 누가 특별한 지명을 받아야 하며 어떤 과제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명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지명을 받은 당사자가 그 일에 대하여 더욱 확고한 다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의욕적인 과제를 지명해 준다. 때로 지도자들은 힘들고, 실증나고, 재미없는 활동만을 지명해 주고, 가장 좋은 것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남겨 둔다. 이것은 임무를 받는 사람이 흔히 그 일이 어떤 뜻있는 성장이나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 안 가 그 일을 꺼려하고 물리쳐 버리게 한다. 만일 어떤 자녀가 가정의 밤이 끝난 뒤 항상 설겅이를 담당하라는 지명을 받고, 한 번도 공과를 하거나, 활동을 선택하거나, 후식을 계획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내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

다. 교회 또는 가정에서 현명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지명받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임받은 것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

3.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집안에서 시장의 식품 구입은 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딸이 장보기를 서툴게 한다 해도, 가족의 식사, 영양 및 식단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그 일을 위임한 사람에게 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물품 구입의 중요성과 소요 경비, 장보는 시기 및 구입할 물품의 질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또는 가족의 계획을 그르칠 수 있다.

4. 다짐을 받는다. 임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목적을 확인한 다음, 지도자는 그 당사자에게 지명이나 과제 또는 업무 분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반응을 보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말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지명을 받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한다. 말을 하는 중에 질문도 하고 명백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맡은 일을 완수하게 된다.

5. 필요한 점을 훈련시킨다. 새로운 일의 업무 분담은 흔히 그 일을 맡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못하여 그가 곧바로 숙련된 수준으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는 때가 흔히 있다. 그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

도자도 합당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신권 소유자가 가정 복음의 책임을 위임받은 경우, 지도자는 시간을 내어 분명하고 합당하게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설명해 주는 시간과 함께 그에게 가정 복음 교육 경험을 하게 하여 효율적인 가정 복음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준비가 없고서는, 가정 복음 교사가 일을 잘못 해내어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게 되고, 정원회 지도자는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가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6. 확인 임무가 위임되면, 지도자는 흔히 자신은 뒤에 앉아 일이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일의 진행을 확인하는 일관성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일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수행된 일을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어떤 것은 다시 계획도 세우고, 더러는 보충 훈련이나 코치를 해주는 등의 일이 포함된다. 확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사 정원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시하에 정원회 파티와 그 후의 음식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면, 정원회 고문은 우선 유의 사항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떤 조치가 완수되어야 할 날짜를 정해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는 파티 날짜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모든 사람을 불러 보아야 한다. 지명받은 사람들을 채근하

거나 재지시하는 계획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간다. 확인 과정이 부족하게 되면 임무를 지명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그 일에 흥미를 잃었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지명받은 사람의 강한 성취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

7. 소신껏 하게 한다. 지도자는 기대감을 분명히 밝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과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지명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스스로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과제를 맡길 때, 그 사람 자신의 능력, 인격, 스타일 및 경험에 맞추어 일할 권리마저 주어야 한다. 일을 맡기고 난 뒤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지시된다는 것은 지극히 난감한 일이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얼마간 그 일에 도입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그 개인이 그 지명받은 일을 하면서 성장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지도자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임 사회나 어떤 계획을 관리하라는 부탁을 받은 보좌가 자신이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자, 보좌의 방식은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회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허용해 준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

### 위임하는 데 필요한 제언

1. 영감을 구한다.
2. 의욕적인 과제를 지명해 준다.
3.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다.
4. 다짐을 받는다.
5. 필요한 점을 훈련시킨다.
6. 확인한다.
7. 소신껏 하게 한다.

러나 회장이 너무 많이 통제하여,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그 보좌는 무슨 일든 하기를 두려워하여 결코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위임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 방법 즉, 원대한 계획으로 지도자가 결국은 얼마간 활동을 덜게 되고, 임무를 맡은 사람은 새로운 업무 분담에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위임은 신중한 계획의 결과이며, 관련된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적당히 훈련시키며, 과정을 확인하고, 위임받은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기꺼이 맡기는 것이다.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두 분 다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본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종래의 나의 태도에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한 믿음을 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칼프리드 브리더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결혼 및 가정 문제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요**즘 들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존경해 온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를 보고는 환멸과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들도 결혼 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흔히 관련 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느낍니다. 여러 해 전에 볼 다 교회의 활동 회원인 남편과 아내가 매우 심각한 결혼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전문적인 면의 상담을 하고자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전 결혼도 하고 계명도 지켰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도 내고, 지혜의 말씀도 지키고, 신전에도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교회 부름에서 주님께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이걸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복받을 수 없을까요?”

나는 교리와 성약을 펴서 그들에게 130편 20절과 21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순종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행복한 결혼에 적용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복해 줄 수 없으셨을 것임을 말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십일조의 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아마 그보다 좀더 많이 낼 것입니다.” 하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관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에, 우리는 그 율법에 관한 한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두 분은 받으셨습니까?”

“에,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주님은 두 분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좌우하는 율법을 지키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나는 교리와 성약 121편을 그들에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구절에서 주님은 의로운 지도력을 행사하는 가르침을 주시며(특히 34-46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어느 단위에나 적용되는 화합에 관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제시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된 지도 임무를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위선이 나 간교함이 없이……”(41, 42절) 행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시비를 가리려 항상 힘으로 대결했고, 가정 문제로 싸움이 될 때마다 “이기기” 위해 온갖 전략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권고의 말씀과는 반대로 서로가 대하는 것은 오로지 “이 세대를 본”(2절) 받고, 각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3절) 품었으며,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에서 인식하는 면이 부족했습니다.(4-6절) 그들의 가정에서는 공홀과 즐거움이, 또 사랑과 우애를 “서로 먼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8-10절) 그들은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거나 울 때 함께 울지 않았으며(15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음을 알았습니다.(16절) 그들은 가능한 한 서로 “평화”롭게 살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18절) 결국, 그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19절)거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21절)는 규율을 익히지 못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마디로 나는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태복음 23 : 23)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상태와 같았노라고 말했다.

귀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이 면에 순종한다면 보람있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해의 영광의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귀하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높고도 도전해 불만한 율법입니다. 다른 어떠한 보상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무릇 승영과 생명의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이를 찾는 자가 적나니,……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교성 132 : 22-23) \*

# 마태에게서 받은 교재

테니스 월시 논문

나는 이제 일곱 살 된 마태가 힘들어  
빈 용돈을 꺼내 토요일에 엄마를 위  
해 상호부조회 교재를 사기로 결정한 자  
신의 행동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한 것인  
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  
안 그가 “집안의 남자”로서 책임을 맡겼  
던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었던 것입니  
다. 우리는 그가 일곱 살짜리 소년의 눈  
길을 끌만한 장난감이나 일상 용품을 살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내게 새 책을  
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희생을 멍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며칠 후에  
한 친구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  
니다. 그가 십일조를 바치고 책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안되리라는 것을 나  
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넌서, 난 그의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  
어요.”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만, 내가 받아 주면 그가 좋아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 아이의 그런 행  
위가 마음에 들어요. 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돌려주어야겠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십일조에 관한 내 생각이  
온통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줄기  
섬광이 비치듯, 나는 갑작스럽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십일조를 충실하게 규칙적  
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나는 십일조 바치기를 요구하시는 경외  
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교성 64 :  
23 참조) 나의 혼동된 생각 속에서, 내가  
집에 질려 십일조를 바친 하나님은, 아  
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쫓아 간구하는 기  
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그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  
시는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과는 크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수  
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의무요 책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바치는 것을 감사하시며 나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엌에  
서 있을 때,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흐르  
며, 마음속으로 주님의 약속을 거듭 되  
뇌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못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 : 10)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린 아들이 보여 준 사려깊고 헌신적인  
행위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버스를 잘못 타고서

스티어링 더블류 실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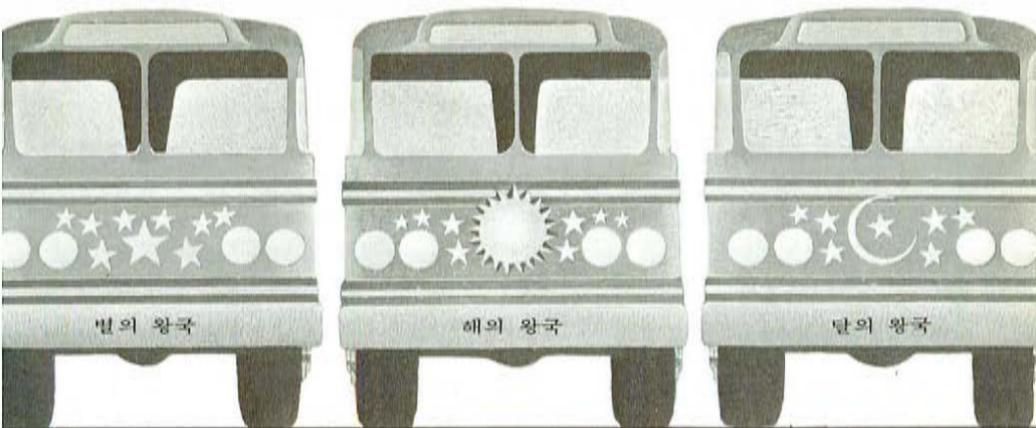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 요소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리 에머슨 포스트릭 박사가 “버스를 잘못 타고서”라는 제목으로 전한 이야기에서 많은 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갈 생각으로 어느 버스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행한 끝에 목적지에 다달은 그는 자신이 캔사스주의 캔사스시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드워드 카로 가는 방향을 물어 본 그는 그곳에는 우드워드 가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분명히 그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의도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가 아닌 캔사스시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잘못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버스를 잘못 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인생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

게 되는 것이 일견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정한 다음에, 불명예와 실패와 불행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실어 나르는 버스에 올라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 멀리 놓여 있는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볼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나뉘어졌는데, 바울은 그것을 해와 달과 별의 빛에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린도전서 15 : 41-42)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광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의 영광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악한 길 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행을 하는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어느 곳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몇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해의 영광의 왕국에 이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 나라 중의 하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가족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가장 높은 천국에 관해서 말하면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 인도되는 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 왕국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곳은 별의 영광의 왕국으로, 그곳은 반짝이는 작은 별이 한낮의 태양빛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처럼 월등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별의 영광의 왕국에 이르는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나 창공의 별이 한없음과 같이 수없이 많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경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지옥의 형벌로 그들의 죄를 씻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저들이 전혀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버스에 잘못 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운명대로 그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이러한 타락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무시파, 빛을 지닌 자,

빛나는 아침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큰 야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이사야 14:13-14)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목적을 눈앞에 두고, 그는 그를 한없는 나락으로 실어 나를 반란의 버스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혀 발길을 내딛기를 원하지 않던 곳에서 끝을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할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며 훌륭한 교육을 받거나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이혼 수속을 끝낼 것을 생각하며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자나 자살이나 마약 또는 알콜 중독자가 된 그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운명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일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칙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나 감옥 또는 정신 병원에 갇히게 된 사람들도 원래 과정을 그려 나갈 때 그런 곳을 생각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개발시켜 나가야 할 가장 가치있는 능력은 그가 가고자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 줄 버스를 알아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매우 반항적인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 많은 사람들과 부당한 교제를 함으로써 사랑의 부족을 배우고자 했으며, 교회에 참석한다거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모님에게나 어울리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악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잘못 탄 버스에 어울릴 태도나 습관으로 몰아갔으며, 그녀는 거기서 그릇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어울리고자 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녀는 일생을 두고 자신이 아무리 디트로이트로 가기를 원했다 해도, 캔사스시에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일부러 목표로 하여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습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그것이 도저히 깨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씨앗이 우리의 성품에 심겨지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비극이 우리를 덮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 전혀 견뎌지지 않은 생활을 한 다음, 그 후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씨앗이 일단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막아 버리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큰 목적을 지닐 수도 있으나, 우리를 그릇된 목적지로 데려가는 버스에 일단 올라타면, 우리 자신이 가장 훌륭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사태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아닌 말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훌륭한 의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진부한 논리를 듣고,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왼손의 의도를 실제 행동을 하는 오른손에 알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씨를 뿌린 다음 많은 탈선 행위를 저질러 그 예외가 오히려 규칙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아니라도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또는 언행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절차이며 흔히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모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 것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형태의 반항의 증거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행진하면서,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조금 한 다음, 예외를 많이 만들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좁고 험악한 길 끝에 있는 영생에 이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모든 범죄자와 모든 죄인들도 자기 그 내부에 스스로를 판단하는 상당히 큰 뜻

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에 주 형무소에서 많은 죄수들이 갖는 종교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몇몇은 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 면에서 볼 때,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동정적이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줄 정도로 관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기도도 드리며 진리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을 죽였다거나, 은행을 털었다거나, 음주 운전을 했다거나, 기타 불의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몇 가지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던 곳에 가는 일을 몸에 익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것처럼 구석진 곳을 자주 찾아갔었으므로 실제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몰두해 있을 때 단순히 생의 한 면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만행을 저지르거나 학교에 방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트로이트로 가든 아니면 캔사스시에 도착하든 개의치 않는다면 조그만 부주의나 몇 가지 거짓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리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마음속에 확실히 정해 놓고 나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는 훌륭한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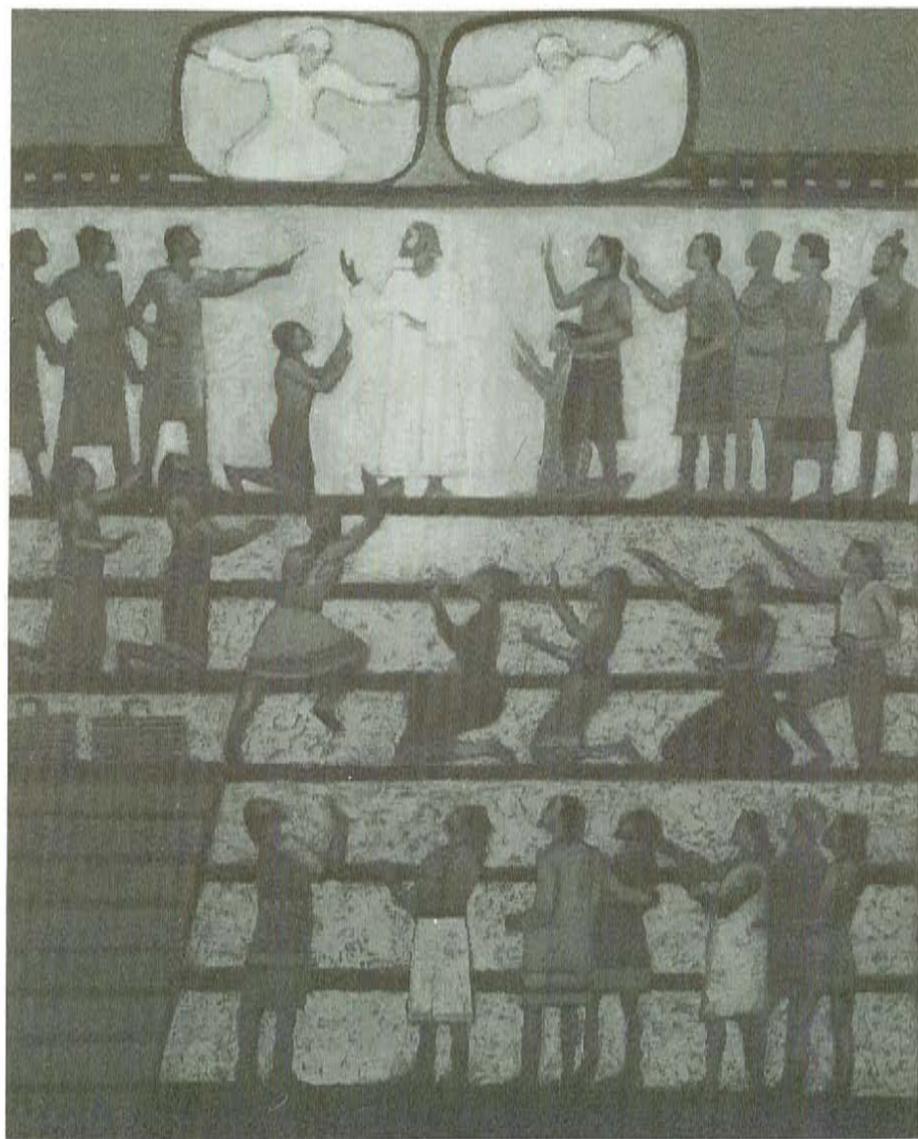
위가 버릇으로 길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버릇을 와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일 천 번씩 물리치고도 한번 방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르는 길은 수천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하늘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 계단은 하나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것도 우리가 그것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한번 신앙을 선언하거나 한번 주변의 환경을 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낡고 틀에 박힌 사상입니다. 즉, 인간은 단 한번의 접점으로 적을 대항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싸움은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난 뒤에 수치와 타락이 뒤범벅이 된 목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씨앗이 반드시 큰 것만은 아닙니다. 커다란 악한 나무는 거저씨만큼 작은 씨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생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알아야 하며 둘째, 우리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버스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



# 페루인의 하얀 하나님 이야기 네 가지

커크 매글비

서 반구에 있는 모든 인디안 부족들에게는 옛날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늘에서 내려 온 하얀 신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 잘 알려져 있다. 페루에서 나와 널리 퍼진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 있는 내용은 이 전설의 신은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국가의 지역에 따라 콘 티키 비라코차, 투누파, 과차카막, 타라파카, 아누안 등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페루 역사가로 명성을 드높인 네 명의 역사가인 페드로 시에자 드 리온, 사르미엔토 드 캄보아, 베탄조스 및 산타쿠르즈 페차콘티는 이 하얀 수염이 난 신에 대하여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을 함께 종합해 보면, 구전되어 오는 하나님의 신체의 외양과 인격성, 안데스 주민의 조상들 사이에서 한 활동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페드로 시에자 드 리온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스페인 통치자와의 사이에서 내

란으로 바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 본건대의 일개 병정으로 1548년에 페루에 도착했다. 그는 1550년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는 새로 정복한 땅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각 지역, 식물의 종류, 원주민의 관습, 그들 역사의 주요한 면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그는 1541년에 콜럼비아 여행을 시작한 이래 그가 관측한 일지를 기록했으나, 이제 시에자는 페루와 그 주민들의 역사를 쓴다는 생각에 열정을 품게 되었다. 군복무를 마친 뒤, 그는 잉카 제국의 생존한 박사과 귀족들인 아마우타스와 오레호네스와 함께 자격을 갖춘 스페인 사람들을 접견하여 정복된 잉카 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하여 그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을 다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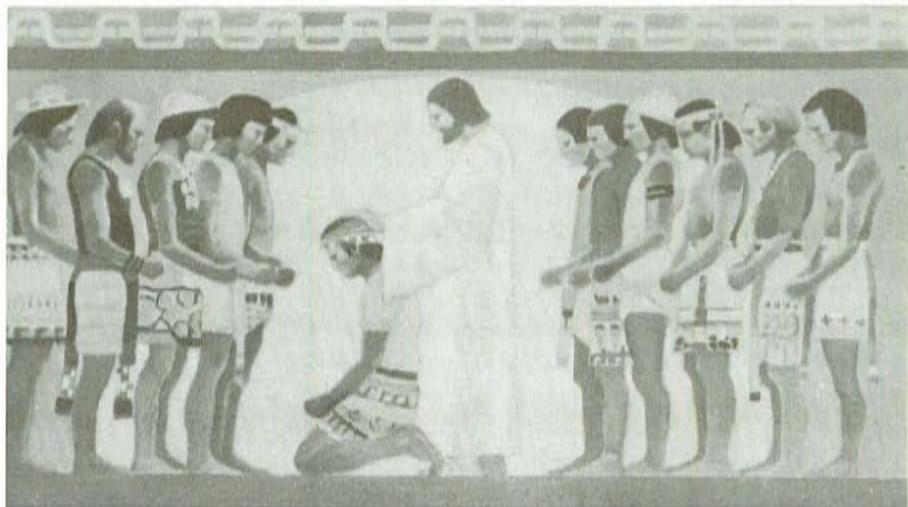
“내가 이곳에 기록하는 것들은 참되며, 중요하고 유익을 주는 것들이다.” 하고 그는 이 책의 서문에 쓰고 있다. “다른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밤늦도록 몸이 지칠 때까지 기록을 한 적이 많았

다. 라 크로니카 델 페루(페루 연대기)는 원래 1553년에 세빌에서 발행되었으며, 그 뒤에 나온 엘 세노리오 드 로스 잉카는 1880년에 가서야 발행되었다. 세노리오 5장에서 잉카의 조상들에게 하얀 신이 출현한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잉카 제국의 통치 이전에, 또는 이러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을 적에, 이 인디안들은 그들이 말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위대한 존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한 연유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해가 없음으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에베드리는 신에게 빛을 다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청했다. 그리하여 커다란 코유 호수 안에 있는 티티카카 섬에서 빛나는 해가 솟아올라,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그 후에 대낮처럼 밝은 환한 빛 속에서, 큰 제구의 하얀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에게서는 품위와 경외감이 풍겨 나왔다. 이분은 산을 평평한 들판이 되게 하고, 평야를 높은 산이 되게 하며, 바윗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큰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큰 권능을 인식했으므로, 그를 만물의 창조주요, 그들을 지으신 분이요, 태양의 아버지라 불렀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분이 더욱 많은 큰 일을 하였으며, 그가 그의 손으로 인간과 동물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큰 유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 준 인디안에 의하면, 그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조상에게서 듣고, 그 조상들은 또 그 선조들이 들려준 노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분은 많은 기적을 행하며 산속으로 여행을 해 갔으며,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여러 곳에서, 그들은 그가 사람들에

게 사는 방법에 관한 제명을 주었으며,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해를 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권고했다고 말한다. 대체로 그들은 그를 티키비라코차라고 부르며, 코유 지방에서는 투아파카라고 부르며, 다른 곳에서 그는 아르나우안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곳에서 그에게 바치는 많은 신전이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희생물을 바치기 전에 그의 형상을 따른 돌 조상을 지었다. 티아후아나쿠시에 있는 큰 돌 형상은 그 시대에 지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 의한 것이지만, 인디안들은 내가 말한 티키비라코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에 관해 더 이상의 말을 하거나, 이 왕국의 다른 어느 곳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페드로 사르미엔토 드 캄보아는 스페인 군대에서 유명한 항해사요 신장이었다. 페루의 쿠즈코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프란시스코 드 틀레도 총독에 의해서 잉카 역사를 편찬하라는 명을 받았다. 고대 잉카의 수도에 그대로 살고 있는 가장 연노환 박사들을 몇 사람 초빙하여, 사르미엔토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그들의 간증을 비교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어 역사를 편찬했다. 그가 준비한 원고는 히스토리야 드 로스 잉카스, 라 세군타 파르트 드 라 히스토리야 라마라 인디카(잉카의 역사, 인디안 역사 제2부)로 불리었으며, 그 중 제2부도 원래 세 권의 불리던 책으로 계획되었다. 그 원고는 여러 해 동안 스페인 왕들의 관리하에 발행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다가, 독일의 피팅겐 대학 도서관



에서 구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1906년에 발견되어 발행되었다. 사르미엔토의 하얀 신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인디안들은 누구나 그들이 이 비라코차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그가 중기에 흰 옷으로 몸을 감싸고, 손에 지팡이와 책을 들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한 후 그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즉, 이 비라코차는 사람들을 모두 다 창조한 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으며, 그가 창조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의 업적을 행하며 여행을 계속하여,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와 스스로 그들의 창조주인 비라코차임을 자처하는 일이 있겠으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믿어서는 안되며, 앞

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는 그가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말을 마친 그와 그의 두 동반자들은 바다로 걸어가 마치 땅 위를 걸듯이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이다.”

후안 데 베탄조스는 프란시스코 피사로(페루의 스페인 정복자, 1470-1541)와 함께 페루를 침공한 초기 스페인 정복자의 한 사람이었다. 베탄조스는 그 나라에 들어오자 곧, 잉카 제국의 언어인 케추아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결국 유창하게 구사하여 왕궁의 공식 통역자가 되었다. 그는 원주민 언어에 능통하여 처음으로 스페인 케추아어 사전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베탄조스는 예전의 잉카 제국의 공주와 결혼하여 루즈코에서 살면서, 직접 자료와 조사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1551년에 안데스 지역 인디안들

의 전통과 역사에 관한 주요 논문집인 수마 이 나라시온 데 로스 잉카스가 발견되었다. 그는 그의 저술에서 “원주민의 말의 체계”를 세우는 데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비탄조는 비라코차 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인디안들에게 그들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해서, 고대 조상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 비라코차 신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니,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흰 옷을 입고, 허리가 느슨히 풀렸으며, 짧은 머리를 하고, 머리에는 제사장들이 쓰고 있음직한 머를 두르고, 머리를 들어 번 채 걸었으며, 손에는 오늘날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종교 서적과 같이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 돌비석이 누구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인지 그 이름을 물으니 그들은 나에게 그는 콘 티키 비라코차 파카야카키 이라 불리웠는데, 그 뜻은 “지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었다.

다음 전설의 근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그는 스스로 “기독교화”되었음에 자부심을 느낀 잉카 제국의 남부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이 알려졌을 따름이다. 그는 돈 후안 데 산타쿠르즈 페차쿠의 암키라는 긴 이름으로 글을 썼으며, 스페인어와 케루아어를 이상스럽게 혼합시킨 그의 원고는 1880년까지 발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하얀 신의 전설에 관한 산타쿠르즈 페차쿠티 이야기는 무척 흥미있다.

“악마가 이 땅에서 쫓겨난지 몇 년 뒤에, 타바틴수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머리가 길고 증기에 수영이 났으며, 좁은 입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그가 젊지 않고 나이든 편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흰 머리에 마른 체격이었으며, 지

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사람들을 큰 사랑으로 가르쳤으며, 그들을 모두 그의 아들과 딸들이라 불렀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항상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수행했으며, 손으로 병자를 만져 고쳐 주고, 그는 아무런 물건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원주민들보다도 각 지방의 말을 더 잘했으며, 그들은 그를 토나파 또는 타라파카 비라코찬파 차야키카찬 또는 파차찬 및 비치카마옥 쿠나카이카마옥이라 불렀다. 그는 아포탐포(여인숙)에서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꾸짖었으며, 그들은 큰 기쁨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손에서 막대기를 받았으며 그들이 받은 막대기에는, 그 설교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토나파라 불리운 이 사람은 콜라수요(잉카 제국의 어느 지명)의 각 지역을 다니며 지칠 줄 모르고 설교했다. 이 토나파는 어떤 도시가 물에 빠질 것이라고 저주했으며, 오늘날 암키 카파코카라 불리운 호수는 고대에 큰 도시였던 것이 지금은 호수로 변한 것이라고 인디안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한 가지는 카차푸카라라는 높은 산 꼭대기에는 여자 형태의 우상이 있었는데, 투나파가 이 우상을 싫어하여, 이 산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산과 우상을 불태워 모든 것이 다 녹아 내릴 정도까지 하게 한 그 무서운 기적의 잔재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 투구파는 차카마크 강을 따라가 바닷가에 닿았을 때 그곳에서 그는 다른 바다로 들어가는 해협을 건넜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아주 오래 된 고대 잉카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다.”

구전되어 오는 하얀 신의 전통에 관한 네 명의 페루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 보면, 비라코차 신에 대한 흥미있는 영상을 그릴 수 있다. 그는 그가 창조해 낸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조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흰 피부에 보통 키인 그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흰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매었다. 청년기를 넘어서 그는 마른 체격에 머리는 흰색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손에 책을 들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관을 둘러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큰 권능을 보이면서도 사랑과 겸손에 가득 찬 태도로 말했으며, 모든 사람을 그의 아들과 딸이라 불렀다.

잉카 제국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난 이 비라코차의 출현은 안데스 인디안들에게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그가 오시기 전 여러 날 동안 태양이 빛을 잃어 사람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했다. 다만 열렬히 기도드리고 간구드린 연후에야 빛이 회복되었으며, 그 후 비라코차가 나타났다. 그는 페루 산지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는 산을 평평하게 하고 평지를 울려 산이 되게 했다. 그는 바위에서 물을 얻었으며,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물 위를 걸어다녔다. 그는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자를 고쳤으며 각 지역의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비라코차도 한 도시를 지주하여 그 도시가 호수에 덮여 모든 주민이 물에 잠겼다. 그가 저주한 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타 버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질 것을 말하고, 그는 백성들이 한 잘못을 꾸짖었다. 그는 그들에게 막대기에 쓰인 설교 집을 주고, 그것을 그들과 함께 살피보

미대륙의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 오는 하얀 신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물몬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 하신 것 사이에 강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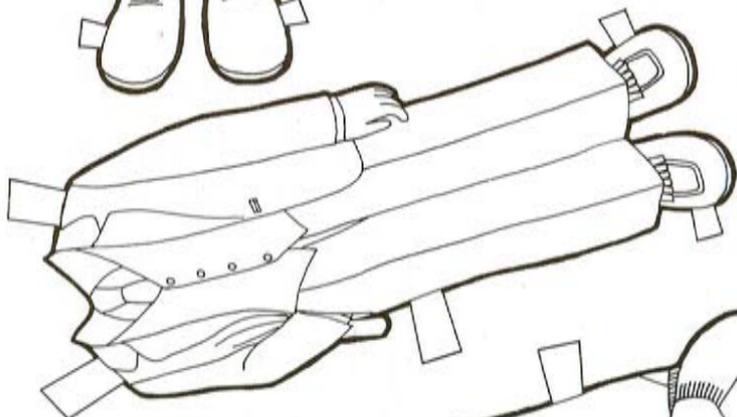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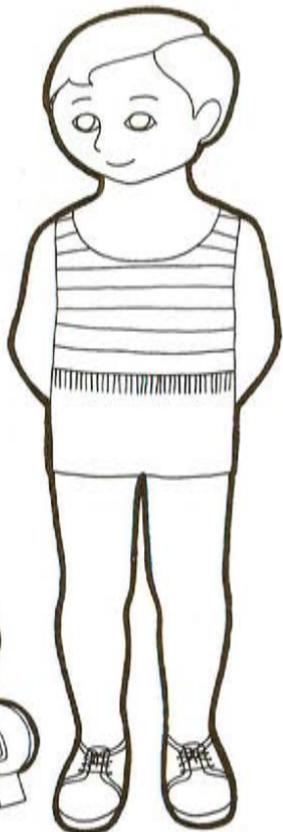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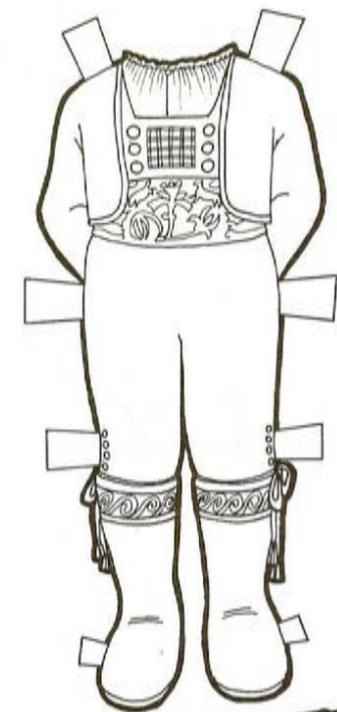
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회중들에게 앞으로 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자칭 거짓으로 비라코차라고 주장하며 그의 이름으로 올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미래에 그들에게 참된 사자와 종들을 보내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상의 물건은 하나도 갖지 않은 채, 비라코차는 방문을 마친 다음 바다로 걸어 들어갔으며, 사람들은 다시는 그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

미대륙의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 오는 하얀 신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물몬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 하신 것 사이에 강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페루인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처음으로 그것을 스페인 역사가들에게 말한 페루의 인디안들이 그 이야기를 더욱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된다. \*

# 종이 인형

안녕하세요?  
 나는 스페인에서 온  
 후아니토예요.  
 나는 코끼리를  
 좋아하고  
 학교 다니기가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스페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준 안느 올슨



# 기억해야 할 날과 약속

팻 그레이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여러분이 침례받는 날은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책에 여러분이 침례받은 곳의 사진을 찍어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한 약속 또는 성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침례 의식은 여러 곳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면,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



침례는 마당에서 시작되었으며 모세 6: 64-66 신권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어느 때나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침례 요단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셨다. (마가복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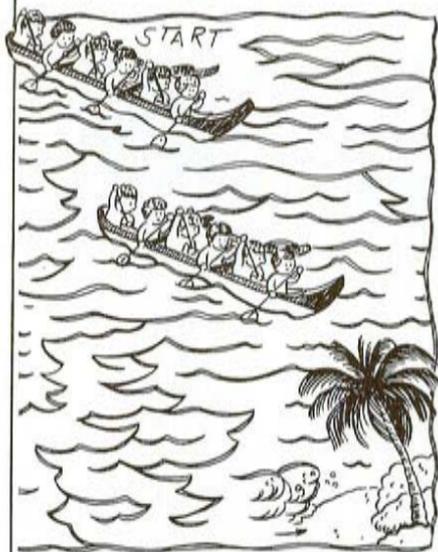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대개 스테이크 팻이나 침례초에 있는 침례장에서 침례받는다.

# 즐릿기 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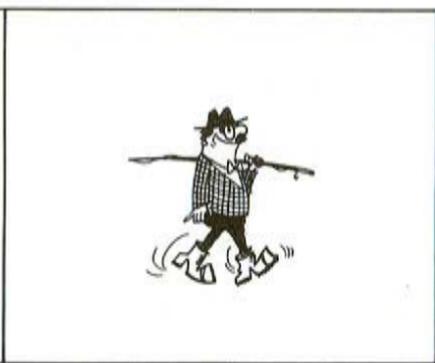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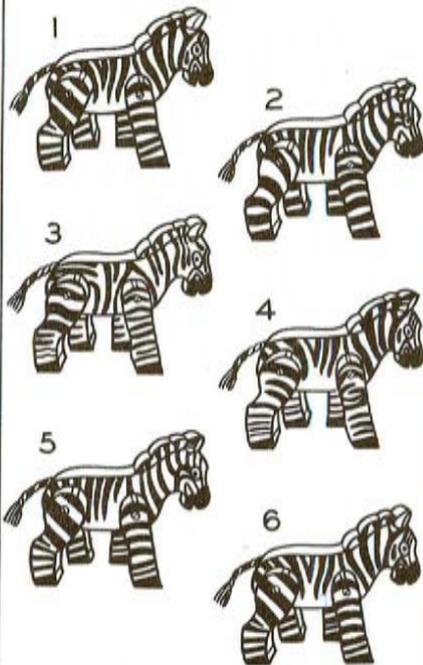
여러분의 경주용 배는  
"출발점"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를 저어 그 배가  
다른 배 사이로 빠져 나가  
파도 물결을 헤치고  
섬에 닿을 수 있어요?

로버타 엘 페어럴



# 같은 그림 찾기

장난감 얼룩말 무리 중에서  
똑같이 그려진  
두 마리를 찾아봅시다.



## 니타의 양



엘리자베스 프리츠

나바호 인디언 소년인 니타 블랙윙은 매에거리며 우는 그녀의 한 살 된 양을 우리에서 끌고 나왔다. “넌 처음으로 털을 깎으러 가는거야. 그러나 두려워 할 것 없어. 아프지 않을거야.”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따스한 봄날 모든 양 배의 털을 깎고 있었다. 양 배 중에는 니타의 오빠와 언니들의 것도 있었다. 이 양은 니타의 첫번째 양이었다. 커다란 손 가위로 할머니는 니타의 양에서 능숙한 솜씨로 대번에 털을 깎아 내셨다.

“어머나 어찌면 이렇게 말랐지!” 하고 니타가 소리쳤다. “가엾어라!” 그는

자기가 양을 털로 감싸 주어 다시 어린 양처럼 보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약간 슬픈 마음이 된 니타가 할머니와 함께 집 안으로 걸어갈 때, 찬란한 적벽 놀이 나바호 인디언 보호 지역의 바윗돌을 붉게 물들였다.

니타는 할머니 앞에서 뛰어가며 “할머니, 선인장꽃이 피어요!” 하고 소리쳤다. 니타는 가시많은 배선인장(식용 선인장)의 가시돋친 꽃받침에서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떠면서 예쁘게 피어나는 빨간 꽃잎을 건드려 보았다. 꽃은 탐스럽게 크고 반들반들 윤이 났다. “하나 집으

로 마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선인장 꽃은 얼마 살지 못한다.” 하고 할머니가 주의를 주었다. “꽃이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자.”

블랙윙 오두막집은 통나무와 나무 껍질로 만들어 그 둘레에 벽돌과 같은 색깔의 진흙을 발라 굳힌 것이었다.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말을 돌보고 옥수수와 호박을 거두어 들었다. 여자 아이들은 양을 몰고 모직물을 짜기 위한 털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어머니도 담요와 양탄자를 잘 째지만, 할머니는 나바호인들 사이에서 가장 훌륭하게 담요를 짜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다.

니타와 그 자매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막대기로 털을 두들겨 보풀과 먼지를 털어 내며 더운 여름날을 보냈다. 그런 다음에는 금속 빛으로 벗겨 내며 실을 뽑아냈다. 니타는 그녀의 양털을 특별히 잘 빚겨 내어 할머니가 양탄자 만드는 데 뽑아 쓰시게 했다.

매일 밤마다 니타는 할머니가 털을 실 째는 막대기에 감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왜 그렇게 여러 번 감으세요?” 하고 그녀가 물어 보았다.

“실을 많이 자을수록 실이 더 가늘어진다.” 하고 할머니가 설명했다. “실이 가늘면 가늘수록, 더 좋은 양탄자가 되는 법이란다.”

현대식으로 밝은 색깔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 어머니는 실에 물감을 들이기 위해 상풍 거래소에서 종이 봉투에 든 물감을 사왔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두 양가족 밑에 달라붙어, 각자 자기 털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색깔을 선택했다.

“나는 하늘처럼 푸른 청색이야!” 하고 마리아가 말했다.

“난 햇님같은 노란색.” 하고 줄리가 말했다.

“난 빨간색, 진한 빨강이야!” 하고 벤이 소리쳤다.

그 세 가지 색깔은 어머니의 양탄자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양은 까만색이야, 그러니 선택하지 않아도 돼.” 하고 레이몬이 말했다.

“내 것은 흰색으로 그대로 둘 생각이야.” 하고 조니가 말했다. “내 털은 레이몬의 것과 섞이면 회색이 될꺼야.”

어머니와 할머니는 세 가지 자연색—까만색, 흰색 및 회색을 사용하였다.

할머니는 상풍 거래소에서 산 물감을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나무 뿌리, 껍질, 열매 또는 잎 같은 것을 끓여 고목한 색깔을 만들어 내셨다.

“니타, 난 네가 갈색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하고 마리아가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 색만 가지고 만드시니까.”

그러나 갈색은 칙칙했다. 니타 역시 밝은 색깔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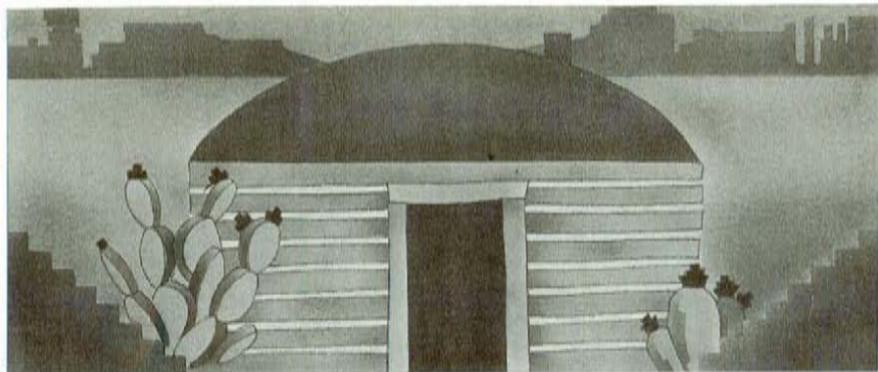
어느날 니타는 할머니와 함께 물감을 내는 데 쓸 식물을 찾으러 가까운 산으로 갔다. 나무와 숲들은 찬 공기 속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어머나, 나무가 참 예뻐요.” 그들이 빨간색 껍질과 잎으로 된 산 마호가니 뿌리를 캐는 사이에 니타가 말했다. “이건 빨간색 물감을 내는 거예요, 할머니?” 그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니, 갈색이 남단다.” 하고 대답하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가지돌친 배선인장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는 진한 빨간색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이 열매를 몇 개 따서 장지색의 물감을 만들어 보자.”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전에 한번도 장미 색깔 양



탄자를 짜 본 일이 없었잖아요!” 하고 니타가 흥분이 되어 말했다.

“장미색을 갈색과 섞어서 멋있는 인디안 색깔을 만들어 보겠다. 그건 곧 우리를 돋보여 주는 땅 색깔이란단다.”

니타는 바위를 향해 지어져 있는 오두막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저물어 가는 햇빛 속에서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저런 색깔 같은 것이죠?” 하고 그녀가 손으로 가르키며 말했다.

“그래. 나는 해질녘에 인디안의 땅 색으로 된 사각형이 많이 들어 있는 도안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면 내 양의 털색은 그걸로 하고 싶어요.” 하고 니타가 소리쳤다.

눈이 내리고 코이웃 메가 우는 겨울이 되자, 니타는 배를 앞에 앉아 할머니가 양탄자 짜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것은 회색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가 둘러쳐 있고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붉은 인디안 땅색의 사각형과 직사각형 도안으로 된 것이었다.

얼어붙은 대지가 풀리고 눈보라가 바람으로 바뀌는 계절이 되자, 할머니는 배틀에서 양탄자를 꺼내 그것을 마루에 펼쳐 놓았다. 니타는 적갈색 사각형에 손을 댔다.

“이게 내 양의 털이에요.” 하고 그녀

가 말했다. “가시돋친 배선인장 꽃과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색깔이에요.”

할머니는 양탄자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을 상품 거래소에 가져 가야겠다. 우리는 밀가루, 설탕, 통조림 식품과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만들 옷감이 필요하단다.”

아름다운 양탄자를 일용품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니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네 아버지가 우리를 트럭에 태워 상품 거래소까지 데려다 줄게다. 상인은 네게 맛있는 사탕을 줄 것이고.”

니타는 웃음을 띄웠다. “암양이 새끼 양을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또 다른 양을 내가 선택해서 가져도 되겠어요.?”

“물론이지” 하고 할머니가 말했다.

“너는 새끼 양을 한 마리 갖고, 전의 양도 새 털이 자랐을 것이다. 선인장 꽃도 다시 피어 나고, 우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나무 물감을 따 오도록 하자. 땅은 그렇게 우리를 돋보여 준단다.”

“그리고 나도 할머니처럼 예쁘게 양탄자 짜는 법을 배우겠어요.” 하고 니타가 말했다.

\*

# 토마스 케인



##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친구

수잔 아빙톤 메드슨

미국의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특별 대변인 토마스 케인 대령은 1846년에 미주리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로 아이오아주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말일성도 개척자들을 방문했다. 그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박해를 받았으며, 그들의 집에서 쫓겨난 상황을 묘사하는 성도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다. 그는 야영지 근처의 나무 숲속을 걸다가, 어느 개척자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

다. 토마스는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이 회복된 복음에 대하여 겸손하게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

토마스는 이 경험으로 큰 감동을 받고, 비록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일생 동안 성도들의 친구가 되었다.

토마스 케인은 펜실바니아에서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네 자녀와 함께 살았다. 그는 많은 정부 관리들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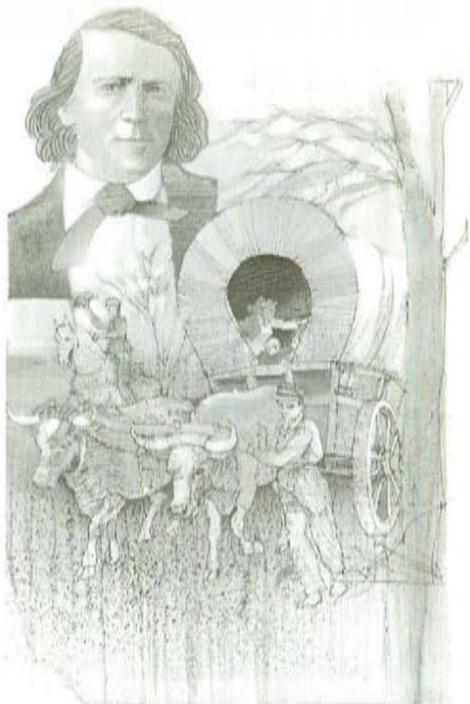
잘 알려졌고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와 성도들간의 오해를 여러 차례 만족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하기 위해 돈이 몹시 필요했을 때, 토마스는 폴크 대통령을 만나 정부에서 오백 명의 말일성도 남자들을 미 육군에 징집하여 성도들을 도와 줄 것을 추천했다. 이들이 물론 대대로 알려진 조직을 이루었다. 이들이 군복무한 것에 대해 지불된 돈은 개척자들이 포장마차와 일용품들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토마스는 브리감 영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는 다른 성도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으며 그들의 복음의 간증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야영지에서 개척자들이 굶주림과 곤경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 넘쳐 흐르는 사랑과 많은 성도들이 치룬 희생을 보고 놀랐다.

미국의 동부 여러 주에서, 토마스는 많은 정치인들과 신문 편집인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찬양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이후, 토마스는 주 정부 설립을 위해 그들이 허가받을 것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특별한 늑대 가죽 셀매 옷과 물론 대대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져 온 금을 주어 사례를 표했다.

어느 때인가, 토마스는 브리감 영 대관장과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 사이를 중재하여 성도들과 정부 사이에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던 오해를 해소시키기도 했다. 군인들이 유타로 파견되었으나, 토마스 케인의 도움으로 아무런



유혈극을 벌이지 않고도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당신은 칼 끝을 돌려 놓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케인은 펜실바니아에 돌아와 살게 되었으나, 그는 자주 말일성도 친구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복지에 항상 관심을 보였다. 1883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토마스가 임종하기 직전에 한 말을 전해 주었다. “당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을 나의 물론 친구들, 내 사랑하는 모든 물론 친구들에게 전해 주시오.” \*

## “나의 간증”



박 원 길  
대구 스테이크 부장

“인간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간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간아,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말은 쇼펜 하워의 말입니다. ”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대집회마다 참석하여 열심히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허” 그것뿐이었습니다.

1966년을 전후하여 자신이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사회 단체와 종교 분야의 논설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지역 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구전에 의하면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 교회가 한국에 상륙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 자료가 궁했던 나에게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편집 진영 진원을 동원하여 문제의 이단? 교회의 소개와 교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신탁고 끝에 당시 한국 교회의 책임자였던 한국 선교부장과 장거리 전화 통화로 성공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삶의 전기가 된 그와의 “인터뷰”가 이곳 대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면서 나는 두 번 놀랐습니다. 그 첫째는 이곳 종교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이단? 교회의 책임자로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요, 한국을 무시하는 비안의 한국통으로 평평이 높은 “한미 외교사”의 저자이며 브리검 영 대학교의 동양학의 대 석학인

“스펜서 제이 파머” 박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두번째는 “쇼펜하워”가 던져 준 세 가지의 문제를 그가 설명한 “물론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풀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진리는 물론경을 읽어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문을 주지만 물론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지식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신앙적인 지주가 없어 흔들리고 있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개척기에는 기독교가 미국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 큰 저력(魔力)이 되었는데, 당시의 나의 주변에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만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이 신봉한 유교나 불교도 이제는 전 민족을 단합시키는 힘을 잃은 지 오래이고 토착화하지 못한 한국의 기독교를 내 세울 수도 없으며 우리 민족만의 고유 종교였다는 동학(東學)이나 다른 것으로 세상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수가 없음을 알고, 나 자신이 종교적인 어떠한 갈등에 처해 있을 때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파머” 박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나는 영원한 동반자인 나의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개종하여 말일에 회복된 참된 교회의 진리와 간증을 키우면서 말일성도의 근본적인 신념인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이니라”(교성 93:36)를 되뇌이면서 오늘날도 왕국행의 동반자인 나의 가족과 함께 멀고도 험난한 내세의 영광을 향하여 보다 참된 것, 보다 거룩한 것,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소박하면서도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많은 여행과 언어에 대한 넓은 지식으로 세계 각 지역의 민족과 친교를 통하여 인류가 타인의 종교에 대하여 지극히 공통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물론경은 고대 이스라엘에 성경이 있었듯이, 고대 아메리카에 관한 성경입니다. “물론”경은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 족속 가운데 있었던 여러 예언자와 배성들에 관한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기록의 일부분으로 주전 약 600년에서 주후421년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임을 자신있게 간증합니다. \*

# 한국 말일성도 합창단 공연



신교사 중창단의 모습



합창단 공연 모습

서울 지역 센터가 준공된 후 처음으로 말일성도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70여 명의 말일성도 합창단은 이 호남 장로를 비롯하여 많은 신권 지도자와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공연을 하였다.

1983년 10월에 열렸던 서울 지역 합창경연 대회 때 출연한 형제 자매들이 주축이 된 이번 공연은 성가곡과 찬송가 그리고 캐럴 등을 엮어서 발표하였다.

한편 창조 출연한 서울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 중창단은 참석한 청중을 매료시켰다. 공연이 끝난 후 합창단은 신당 와드 정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으며 3곡의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 \*



합창단 공연 모습